

농작업 대행단, 효자노릇 톡톡

임실, 명품한우 육성 기여 옥수수 재배 활성화 등 농가 "도움 많이 돼" 호평

임실군이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추진 중인 농작업 대행단이 명품한우 육성에 크게 기여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군에 따르면 농작업 대행단 운영 효과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올해 재배면적은 110여ha로 지난 해 67ha보다 164%가 증가했다.

하계 사료작물 생산기반 확보와 수확작업 편리성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군은 앞으로 500ha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축산 농가가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가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 농작업 대행단은 임실군 축산물의 명품화(명품한우, 명품치즈)를 유도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사료용 옥수수 농작업 대행을 신청한 신덕면 오공리 최모씨는 "옥수수를 재배해 3년째 임실군 농작업대행단을 통해 수확하고 있는데 재배 후 수확문제가 해결됐다"며 "소에게 고품질 옥수수 사일리지 급여를 통해 한우 번식율을 높이고 육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명품한우를 키워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농작업 대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기(자주식 베일러) 1조를 추가 구입하여 권역별(중부·서부, 남부, 북부) 운영 3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 10월까지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하며, 옥수수 수확과 더불어 수단그라스 수확작업까지 확대하여 3년차 하계조사료 수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조피해와 위해조수(멧돼지, 고라니 등)피

해로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올해에는 옥수수 수확을 10여일 앞당겨 추진한다.

폭염으로 인한 옥수수 포장이 가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고품질 사일리지 생산을 위해서는 수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포장에서는 주기적인 관수를 통해 건조피해를 예방, 품질과 수량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도를 하고 있다.

경사지나 관수가 어려운 포장에서는 속기와 수량성을 비교분석하여 수확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장지도에 주력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폭염 속에서 수확작업 환경은 좋지 않지만 어렵게 재배한 농산물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옥수수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도시민 유치 러시

남원시 사업 본격 착수 내년 3월 입주자 모집

남원시가 본격적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을 통해 남원이 귀농·귀촌인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 7일 주생면 상동리에 임시거주시설 10동과 실습농장 3,300㎡, 게스트하우스 1동을 조성하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업을 발주했으며, 8월 말 토목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거주시설과 농지를 일정기간(1년 내외) 임대해주고 체계적인 영농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농촌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주택·농지·일자리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10가구가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남원시가 올해 귀농·귀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2016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해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스트 하우스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연계해 20~40대의 젊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단기간 체험과 숙박을 제공하고, 교육·상담 등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원시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게스트 하우스 조성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민 유치 귀농학교와 여성 귀농학교 등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올 목표인 1,000여명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남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귀농



남원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감도

인의 집에는 현재 예비 귀농·귀촌 2가구가 실습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156가구 5,100명이 남원에서 제2의 인생을 일구고 있고, 올 6월말 현재 405가구 560명이 입주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편 이준무 남원시 농정과장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을 통해 그동안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거주 공간 해결과 맞춤형 교육제공을 통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남원시는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3회 남원시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지난 14일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연다.

"도령남자와 함께하는 여름밤 축제"

제3회 남원시 청소년어울림마당 성료

남원시는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3회 남원시 청소년어울림마당을 14일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개최했다.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관해 진행하는 이번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도령남자와 함께하는 한 여름밤의 축제'라는 주제로 꾸며진다.

행사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체험부스, 공연, 캠페인으로 운영되며, 체험부스에서는 디퓨저 만들기, 아광봉 만들기, 레몬에이드 만들기 등이 운영되고, 평소 춤·노래에 소질이 뛰어난 청소년

들이 숨은 끼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댄스, 랩, 풍물 등 각종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캠페인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남원 청소년들의 자치적 활동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에서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연 6회 운영하고 있으며, 제4회 청소년어울림마당은 9월, 제5회는 10월, 제6회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농업대학 하계방학 특강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원명품농업대학에서는 여름을 맞이해 8월 중 총 6회 동안 명품농업대학 학생과 청년농업인 중 희망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스피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하계방학 특강은 적극적인 자기홍보시대를 맞이해 농업인 또한 직거래와 체험교육, 박람회 등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농장을 홍보해야 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청년농업인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발표기법, 보이시교정, 청중분석, 시선처리, 발음교정 등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스피치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생들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위해 많은 지원에 감사의 뜻과 스피치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많이 찾게 되면서 앞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이환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농장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바쁜 영농시기에도 교육을 위해 센터를 찾은 농업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관심 있는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순창군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나서 농촌 고령노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추진하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무릎관절 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술비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술관절)'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 등이며, 무릎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 까지 실비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수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와 의료비지원신청서를 작성,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오는 12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수술을 시행해아만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 전화(650-5245)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영 기자

치매 걱정없는 건강한 임실 만들기 최선

무더위쉼터 예방교실 호응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임실군 치매안심센터(센터장 김형진 의료원장)는 지난 한 달여간 강진면 갑담경로당 및 강진경로당 쉼터를 찾아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군은 연일 30대 이상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지역주민들과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에게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건강체조 등을 병행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치매예방교실은 치매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치매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뇌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시키는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다.

교육은 뇌신경체조 및 치매예방체조, 다양한 작업치료 활동, 치매예방 교육, 치매예방 콘텐츠 확산,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비용,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정보제공, 치매인식개선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김형진 센터장은 "군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임실군, 하나되어 모두 행복한 임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